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선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는 자주 다뤄졌던 고려 말 조선 초 역성혁명의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는 말처럼, 드라마는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과 교묘하게 배치 시킴으로써 역동성을 높이고 있다. 썩고 썩은 금수저 귀족 사회, 자기들만의 이너서클, 불평등과 착취와 무능의 일상화 속에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상가, 혁명과 개혁 사이에서 정통성을 고민하는 유학자, 세상 사람들을 생생지락(生生之樂 : 백성들이 모두 생업에 종사하며 삶을 즐겨위함을 이르는 뜻)으로 웃게 만들고 싶다는 야망가의 싸이판이다.

게다가 화사단·미륵사·무명 등의 이른바 정보 조직들, 게다가 민초 분이가 총괄하는 시장관 정보 조직까지 가동되니 요즘의 정보 조직들을 무색케 할 정도의 활극이 아닐 수 없다. 피가 난무하는 권력투쟁을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을 깨고 신세계의 이상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다.

지금의 시대에는 역성혁명 같은 혈투 대신에 다행스럽게도 선거가 있다. 시민들의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제도다. 미국과 같이 기독교가 공고하게 제도화된 사회에서도 지금 버니 샌더스가 1%를 위한 기독교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선거를 통한 정치 혁명을 꿈꾸고 있고, 그 꿈이 시민들의 손으로 실현될지도 모른다. 선거는 그 자체가 혁명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합법적인 민주 절차라 해서 선거라는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로 선출되었다. 대중 영합적인 나치 정권이 선거에서 이긴 후에 대중의 환호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 난 후 어떤 재앙을 벌였는지는 이미 역사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을 목도하고 있는 것일까? 국경원의 선거 개입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선거로 뽑힌 박근혜 정권이다. 권력은 완벽히 장악됐다. 종편까지 가세한 언론은 권력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커녕 후광을 둘러 주기에 바쁘다. 최소 40%라는 무조건 지지는 마치 ‘남사벽’(남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처럼 정권을 철통같이 사수하며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종교적 지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제가 죽을 썩고 민생은 나라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쇠락하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도 정권 주변에서는 기껏 ‘진박 감별’ 같은 측근 정치만이 판친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게 결국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다. 박근혜 정권의 특장 중 하나가 ‘도대체 설명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미 통일부 장관마저도 증거가 없다고 거 뒤들이 개성공단의 핵 개발 비용 제공이라는 설을 되풀이한다.

북한의 핵 개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하는 것도 무시하고,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라는 점도 아예 무시한다. 사드가 북한의 남한 공격 억지용이 될 수 없다는 기술적 사실을 거론치 않는다. 왜 우리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이해에 앞장서야 하는지 한 조각 설명도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얼마나 불투명하게 할지, 중국의 경제 회복이 안 그래도 무너져 내리는 우리 경제에 얼마나 치명타를 가할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가장 한심한 것은, 이번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임이 확실함에도 긴급명령이라면 국회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어떤 고도의 통치 행위도 헌법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통치란 없다.

재앙으로 치닫는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선거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로 안보 위기를 제기하며 4월 총선의 분위기를 잡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심판하는 것도 선거의 힘이다. 박근혜 정권의 재앙적 통치에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인 선거. 우리는 합리적 권력을 선출함으로써 재앙으로 치닫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까?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의료칼럼

자궁근종 예방 부지런해야



이성훈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자궁근종센터장

별·성별 일반 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은 전체 대상자의 77.5%가 검진을 받는 반면, 40대 여성은 대상자의 67.5%, 50대는 72.5%만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후의 중년여성은 전염주부인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의 강제성이 떨어지고, 다른 가족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해 발견이 늦어진다.

그러나 자궁근종을 방치해 크기가 커지면 방광, 직장 등 다른 장기와 유착될 수 있고, 특히 폐경 이후에 생기는 근종은 예후가 좋지 않은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

자궁은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자궁근종은 자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smooth muscle)에 생기는 양성종양이다. 35세 이상 여성의 40~50%에서 나타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되지 않아 보통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근종의 위치, 크기, 개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과다, 월경통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출혈, 골반의 불편감, 빈혈, 빈뇨, 변비 등이 동반되거나 아랫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자궁근종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여러 연구를 통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궁근종은 가임 연령 기간에 생겼다가 임신 기간에 커지고, 폐경 이후에는 크기가 작아지며 새로운 근종의 발생은 드문 편이다.

그러나 종양이 지속되는 경우, 폐경기 후에도 자궁근종이 발견될 수 있다. 폐경기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 드는 시기인데, 이때 근종의 크기가 증가하면 근종이 악성인 육종으로 변성될 위험이 높고, 근종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예후가 나쁜 편이다. 따라서 폐경 이후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궁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종의 크기가 작고, 개수도 한 두개로 미미하다면 별다른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데 만약 근종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기가 크

거나 근종으로 인한 출혈이 있고, 불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자궁을 보존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궁동맥색전술은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다.

종양은 정상적인 조직보다 혈액공급을 많이 필요로 하고 혈관의 수도 많다. 자궁동맥색전술은 이러한 근종에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동맥을 막는 시술이다. 근종을 자체 소멸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다발성 근종도 한 번의 시술로 제거할 수 있으며, 시술 후 재발 가능성도 낮다. 또한 2~3mm정도의 최소 절개로 시술이 이뤄지고, 시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짧은 편이라 환자의 부담도 적다.

자궁동맥색전술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근종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효과적인 시술을 위해서는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최첨단 혈관 조영 기술을 갖춘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자궁근종은 특별한 자각 증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연령대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기고

위기때 빛나는 소신과 원칙의 리더십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순신 리더십’으로 회자되곤 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모든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하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13년 전 기획예산처 과장 시절에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맡았던 때가 떠올랐다.

개성공단 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 3대 중점사업’으로 추진됐다. 특히 개성공단은 휴전선과 맞닿아있던 군사지역에 건설된 평화지대로서 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북측의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측은 우리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상생의 사업으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 큰 기대 속에 2003년 첫 삽을 떴다.

필자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개성공단 조성사업 담당 과장을 지냈다. 당시 북측은 개성공단 내에 전력 발전소를 지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에 동

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공단 내 발전소 건설 문제는 찬성 반대를 놓고 청와대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됐다.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담당 과장으로 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새로 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재정적인 이유도 있거니와,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도 했다. 평화의 상징인 사업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략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우리 쪽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의 상황과 미래에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 올지 냉정하게 판단했다. 공단 내 발전소 건립 대신 개성공단과 거리 가장 적합한 경기도 문산에 송배전 철탑을 세워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결국 이 방안대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밤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전면차단했다. 한국전력공사측은 경기 파주변전소에서 원격조종을 통

해 단전조치했다. 개성공단 단전은 2005년 한전 개성지사 개소와 함께 최초 송전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발전소를 짓지 않고 송배전으로 추진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분위기에 휩쓸려 공단 내에 전력 발전소를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정부가 개성 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라고, 전력발전소가 공단 내에 있는 한, 완전히 공단 가동을 멈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카드를 내민 것은 수없이 심사숙고해 나온 결정이라고 믿고 싶다. 한번 떨어지면 쫓은 다시 가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반복할 수 없는 정부의 결정이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총선이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안보위기가까지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해안(慧眼)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지닌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社說

‘눈물의 경전선’ 또 다른 호남 차별 아닌가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은 선로가 낡고 굴곡도 심해 ‘저속철’의 오명을 쓴지 오래다.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 삼랑진역까지 300km를 가는데 무려 6시간 45분이나 걸린다. 하루 한 차례 운행되는 기차에 몸을 싣고 부산까지 가는 승객들은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이러니 사람들은 장거리 운전이라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투덜댄다.

경전선이 거북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개통 이후 단 한 차례도 선형 개량을 하지 않은 광주~순천 구간(113km) 때문이다. 동광양~광양, 부산~진주 간은 복선 전철화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국가 4대 간선철도망(경부·호남·중앙·경전선) 가운데 유일하게 비전철 상태다. 또 다른 호남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 구간에 대해 선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철화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광주에

서 순천이 전철로 대체되면 광주~부산을 2시간 45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등에 영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양 지역의 획기적인 교류 증진도 꾀할 수 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 사업에 포함됐지만 공사비 2조304억 원이 큰 부담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청와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매달리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비해 강원 지역 지자체와 단체장들은 춘천~속초 구간 복선화를 위해 1인 시위까지 나섰다고 한다. 경전선 현대화는 지역 차별 해소와 영호남 화합에 꼭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시민과 지역 정치권 등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민·관이 함께 나섰다

지역의 모든 문화 역량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 주변 활성화에 집중된다. 광주시가 문화전당과 전당 인근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업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 16일 윤장현 시장이 주재하는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태스크포스(Task Force·이하 TF) 회의를 열어 문화전당을 예향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한편 광주를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논의했다. 활성화 TF는 문화·관광·도시디자인 등 관련 부서와 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아시아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관광협회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금남공원 야외공연, 총장로축제, 사직 포크음악제 등 산발적으로 전개돼 온 문화전당 주변 사업을 하나로 묶게 되는 문화전당 프리니페스티발 ‘광주’의 운영이 우선 눈에 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도하는 프리니페스티발은 서울·대구 등 타 지역과 손잡고 전국화에 기틀을 다지며, 내년에는 영남·호남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에든버러 프리니페스티발에 버금가는 아시아 대표 축제로 육성하게 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신경을 쓴 적이 보인다. 전일빌딩 옆 금남지하차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문화전당 및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연계한 남광주 야시장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번 TF회의 가동은 문화전당의 에너지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되려면 문화전당의 콘텐츠와 개관 효과가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 지평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문화전당이 ‘거대한 섬’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혹시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람이 머물다 간 들녘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동가지붕 둥근 박 꿈꿀 때/ 고개 숙인 눈발에 열매 빨갛게 익어만 가는” 1984년 발표된 창작 동요 ‘노을’이다. 아마도 적잖은 이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지 않을까. 교과서에서 배운 동요가 아닌, 난생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지만 처음 들을 때부터 ‘참 좋다’는 생각이

수상자 중 가장 유명한 곡은 ‘아빠 힘내세요’일 거다. 1997년 본선 진출 곡으로 수상은 못했지만 2005년 BC카드 CF에 사용되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당동명 초인종 소리에 열른 문을 열었다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앞에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 아빠 힘내세요! 우리

신개념 동요

가 있잖아요” 동요 부르는 아이였던 것 같다.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흥얼거리고, 가사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행이었다. 분위기에 휩쓸려 공단 내에 전력 발전소를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정부가 개성 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라고, 전력발전소가 공단 내에 있는 한, 완전히 공단 가동을 멈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카드를 내민 것은 수없이 심사숙고해 나온 결정이라고 믿고 싶다. 한번 떨어지면 쫓은 다시 가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반복할 수 없는 정부의 결정이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총선이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안보위기가까지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해안(慧眼)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지닌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프로그래밍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18일 엠넷과 tvN에서 동시 방송되는 ‘위키드’(WE KID)로, 제목은 ‘우리 모두 아이처럼 노래하라(WE sing like a KID)’를 줄인 것이다. 4000명 중에서 선발된 아이들 18명과 박보영·유연석·타이거JK·윤일상 등이 멘토와 작곡가로 참여해 동요를 만든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마력’이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는 ‘국민 동요’의 탄생을 기다려 본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열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7-019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